엠에스웨이를 아껴주시는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안녕하십니까, 엠에스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수입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믿고 기다려주신 주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당사는 세계 유일의 독보적인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10년간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며 연구개발(R&D)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전방 산업의 양산 시점이 지연되면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였고,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대규모 감자로 인해 주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과 피해를 입혀드렸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경영진으로서, 그리고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실망과 고통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드리지 않으며,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주주 여러분, 당사의 10년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비로소 결실을 맺을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사의 기술이 적용되는 상용화 제품들은 최고 수준의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였기에, 그동안 주요 고객사들은 제품개발에 긴 검증 및 테스트를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비롯하여, 당사의 핵심 소재를 채택한 상용 제품들이 속속 완성되고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수요처인 전방산업의 환경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시장의 실제 양산 수요가 눈앞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임직원이 사력을 다해 10년 R&D의 대결실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이에 회사는 향후 예상되는 결실을 기존 주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입으신 손실을 보전할 기회를 드리고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회생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주주분들로부터 '회사가 정상화되고 가치가 상승할 때 다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번 BW 발행은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한 방안입니다. BW(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 초기에는 회사채로서 권리를 보유하다가, 향후 당사의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보통주로 전환하여 상승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자로 손실을 입으셨던 주주분들께서 회사의 성과를 다시 향유하실 수 있도록 액면가 수준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배정은 투자를 희망하시는 주주분들께 최대한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주주평등의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인 모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초 청약하신 주주분께서는 초과청약 및 이후 발생하는 사채 실권분을 제3자 배정을 통해 추가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지난 시련을 거울삼아 당사에 주신 마지막 기회를 결코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성과와 기업가치 제고로 주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엠에스웨이의 재도약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엠에스웨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민수 드림